

개발도상국 화장실 개선 지원 모색

문병근 경기도의회 의원 “이제는 우리가 도와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문병근(국민의힘, 수원11)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수원특례시·세계화장실협회 관계자와 함께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 화장실 개선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화장실문화 선진국으로서 개발도상국 화장실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국내에서도 체계적인 화장실 운영과 유지관리를 통해 개방화장실 관리에 앞장서고 있는 수원시와 화장실 문화 전 시관을 운영하며 화장실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세계화장실협회,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총량과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눴다.

문병근 의원은 우수한 사례로 꼽히는 수원시의 화장실문화와 기술력, 사례 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화장실문화 선진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화장실 개선사업 지원을 제안했다. 또한 세계화장실협회와 수원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을 촉구했다.



문병근 경기도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수원특례시·세계화장실협회 관계자와 함께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 화장실 개선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대해 세계화장실협회 관계자는 “필리핀 정부의 공식 요청이 있을 시, 협회 차원에서 민간 기부금 등을 활용해서 시급한 화장실 개선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현재도 매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열악한 환경의 화장실 개선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모 참여시 공공기관이 참여·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화장실 개선 혹은 신축 후 적절한 유지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수원특례시에서는 “수원시는 ‘해우재

화장실 박물관 운영 등 이전부터 화장실문화가 크게 발달했고, 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의 우수한 화장실문화를 알리기 위해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세계화장실협회와 해우재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시의 우수한 화장실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에 광역자치단체로서 경기도의 역할이 필요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현재는 화장실

관련 업무 및 예산이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돼 있어 한계가 있는 상황이지만 개발예산수립, 국제협력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사업 공모 참여 등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 처했던 시기 필리핀 등 타국의 원조가 있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우리가 도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인창 기자

의회 단신

안산지역 학교 급식실 현대화 논의

강태형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강태형(민주당, 안산5) 의원이 17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지원청과 지역 내 교육에 관한 주요 현안과 민원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강태형 도의원을 비롯해 안산교육지원청 정선영 교육시설과장, 김남희 예산팀장, 윤성에 급식팀장, 고영인 국회의원실 조선식 비서관, 정익경 와동중학교 학부모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와동중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 경일관광고등학교 한국조리 실습실 구축사업에 대한 특교와 예산확보 방안 등에 논의했고 이후 화랑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공사와 선부중학교 역도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강태형 의원은 “지역 내 교육 현장의 주요 현안들이 많이 산재해 있고, 학교 급식실 현대화사업, 체육관·역도관 등 예산확보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다. 앞으로도 교육청, 해당 학교, 학부모, 지역 주민들과 원활하고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들이 잘 반영되는 것은 물론, 사업계획과 예산 확보, 추진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영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은 “오늘 현장 방문을 통한 간담회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로서 감사를 표한다. 사업 계획, 예산 확보, 추진과정 단계에서 학교, 학부모,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창 기자

인천가족공원 찾아 소통 홍보

김유근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유근(국민의힘·서구3) 의원이 인천가족공원을 찾아 소통 홍보에 나섰다.

김유근 의원은 최근 인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인천가족공원 현장을 방문해 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일반 현황과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인천가족공원은 47만여 명의 선진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온라인 성묘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차별화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김 의원은 인천가족공원 사업단장으로부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보고와 함께 봉안당, 제례실 등 제반 시설을 확인했다.

특히 호국봉안당에 대해 면밀히 살핀 후 “국가적 차원에서 최대의 예우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유근 의원이 인천가족공원을 찾아 소통 홍보에 나섰다.

를 갖춰야 하기에 시설 준비 및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석을 맞아 연례반복적으로 성묘객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추석 명절 성묘 종합 대책도 보고 받은 후 “차량 통제, 셔틀버스 운행 등을 통한 교통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노력뿐 아니라 응급 상황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다”며 수습한 추진 계획의 내실 있는 실천을 당부했다.

안종삼 기자

대학생 인턴 의정 지원 활동 성공적 종료

인천시의회, 6주간 10명 수료 역량 강화·진로 탐색 기회 제공

인천시의회는 최근 제1기 대학생 인턴 수료식을 갖고 지난 6주간의 인턴 활동을 성공적으로 종료했다.

‘인천시의회 대학생 인턴십’은 개원 이후 최초로 지역 내 대학과 업무협약

을 체결해 올해 여름방학부터 시행된 의회와 대학 간 협력 프로그램이다.

청년지원 정책과 정치·사회적 참여 확대가 사회적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지역 사회에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인천시의회는 올해 초 지역 대학을 통해 엄선된 10명의 대학생 인턴들에게

지난달 10일부터 6주간 실무 의정 지원 경험을 통해 직무역량 강화와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했다.

인턴들은 의회사무처 각 부서에 배치돼 각종 정책자료 조사, 조례안 성안 및 분석 등 입법 지원, 보도자료 작성과 카드뉴스 제작 등의 실무능력을 배웠다.

허식 의장은 “대학생 인턴들의 열정과 성과에 감사드린다”며 “인턴십 프로

그램이 청년의 의정 참여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랑했다.

이어 “청년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청년 삶의 질과 행복 증진을 위한 모범적 시민 의회로 계속 발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허식 의장을 비롯해 대학생 인턴십을 제안한 김대영 의원과 시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안종삼 기자

문화예술·관광 연계한 지역 활성화 추진

인천 서구의회 향토연구회 여주 신록사 관광지 방문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향토문화 정책연구회가 여주 신록사 관광지를 방문했다.

연구회는 국내외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탐방을 통해 서구 향토문화 및 관광지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이번에 방문한 신록사 관광지는 문화

체육관광부가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한 ‘여주오곡나무축제’와 ‘여주도자기 축제’가 개최되는 곳으로 국가지정문화재 8점을 보유한 신록사를 비롯해 여주 박물관 등 문화시설과 여주도자기세상, 갈리리움 등 역사자원과 문화예술자원이 집적돼 있다.

특히 최근 남한강 최초로 강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다양한 체험관광상품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문화예술관광지로서도 각광받고 있어 연구회는 역사와 문화예술, 관광을 연계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연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향토문화 정책연구회가 여주 신록사 관광지를 방문했다. (사진=인천 서구의회)

구하기 위해 신록사 관광지를 방문하게 됐다.

연구회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문화관광해설사를 통해 신록사 등 역사자원에 대한 스토리텔링의 중요성, 박물관 관람을 통해 역사자원의 보전 및 활용방안, ‘도자기’를 소재로 체험프로그램 및 관광상품 등 콘텐츠 개발 등을 직접 들

고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 방문에는 유은희·박용갑·홍순서 의원이 참여했으며 연구회 대표의 원인 심우창 의원은 “역사자원과 문화예술자원의 접목을 통한 지역의 가치 제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해 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

복지대상자 지원 업무협약식 참석

이재식 수원시의회 부의장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민주당, 세류1·2·3·권선1동) 부의장은 17일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세류2동 ‘복지대상자 지원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세류2동, 세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버드네 성당이 함께 참여한 이번 협약식은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교류하고자 마련한 지역사회 복지대상자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이 부의장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과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며 “민·관이 협력한 따뜻한 손길이 다양한 복지대상자에게 닿기를 기대하며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조례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세류2동은 쪽방, 반지하가 밀집해 있고 노인 비율이 많은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어 수원새빛뜰봄 사업 추진,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위한 장수사진 촬영 등 지역사회 복지 문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희열 기자

옥외광고 LED전광판

수도권 전역 광고주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 드립니다.
서울시청·명동·동대문·종로3가·강남·홍대 등 다수지역 송출

문의 032)508-0006

일간경기 영상사업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7, 1147~1150호(청천동, 제이타워3차)